

# 감사·보시 실천하며 이웃과 하나 되기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38 수능시험기도

#### 내 아들 시험 잘 보길

수능시험을 앞두고 H씨는 오늘도 예불에 참석하여 기도하였다.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처음 절에 오던 날을 생각하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가끔 절에 가곤 했었지만 시집은 후로 거의 가지 않았다. 초파일에만 등을 밝히는 정도였지만 시집은 후로 거의 가지 않았다. 초파일에만 등을 밝히는 정도였지만 시집은 후로 거의 가지 않았다. 초파일에만 등을 밝히는 정도였지만 시집은 후로 거의 가지 않았다.

#### 아들이 고3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절 찾아

#### 마음보시로 아들에 대한 자신감 생겨

왔다. 그를 따라 지난겨울부터 절에 다니게 되었다. 오직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렇게라도 하면 부처님이란 분이 그래도 아들을 잘 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매일 절에 가면 마음으로 아들 합격 발원 기도만 하였다.

#### 위아는 마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험생 부모를 위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위해 적극정성 기도하냐, 기도 원력에 대한 말

솜이러니 싶었다. 그러나 스님은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자라면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일은 누구라도 합니다. 세상사람 누구나 악인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에 왜 다니까요? 바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아, 나, 잘 되기 위해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닌가... 순간 H씨는 머리가 쿵

하고 울려왔다. 스님의 다음 말씀은 더 놀라웠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 학생들이 이번 1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안에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쁜 마음으로 모든 자녀를 위한 불자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H씨의 마음속에서 자꾸, '싫어, 다른 애들보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부터 합격하고 불이익아, 남 위해 기도할 새가 있나' 하는 소리가 나왔다. 스님은 마치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또 다짐을 하셨다. "자기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고 싶으시면 이 기회에 기도 보시, 마음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특히 기도해 줄 부모가 안 계시거나 어느 한쪽 부모가 안 계신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욱 지극한 마음을 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부모가 안 계시니, 시험에 합격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없었지 근심걱정 하는 학생들이 위

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 보세요." H씨는 마치고 나오며 안내해준 이웃 보살에게 "아유,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솔직히 힘이 드네요. 내 아들 생각하기도 바쁘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까지" 하고 털어놓았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힘드니까 그만큼 보람이 있지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된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더니 "제가 오 시던 날부터 보살님 아드님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모르셨죠?" 한다. 가슴이 뭉클하게 고마웠다. "아니 우리 애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도 따뜻한 마음을 내 보세요." H씨는 마치고 나오며 안내해준 이웃 보살에게 "아유,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솔직히 힘이 드네요. 내 아들 생각하기도 바쁘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까지" 하고 털어놓았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힘드니까 그만큼 보람이 있지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된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더니 "제가 오 시던 날부터 보살님 아드님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모르셨죠?" 한다. 가슴이 뭉클하게 고마웠다. "아니 우리 애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와 비할 수 없는 안정감과 환희심까지 올라왔다. 곧 있을 수능시험, 오늘도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러 절에 가고 있다.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는 불자의 기도는 답이라 한다. 나만을,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중생무변서원도를 행하는 것이 참된 불자이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위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모든 중생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과 그 마음을 받드는 것이 불자 아닌가.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 신앙개시판

- **구룡사 법화경 산림대법회**=원주 구룡사가 『묘법연화경』 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11월 16~18일 구룡사 심검당에서 열리는 『묘법연화경』 산림대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100분씩 총 5회 10시간의 강의를 열린다. 현재 스님(월정사 회주)을 법주(법화경) 각품의 대의와 요점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산림대법회 동참자에게는 교재 및 『법화경』(오공 강) 1권을 증정한다. 접수는 15일까지, 선착순 50명에 한해 받을 예정이다. (033)732-4800
- **도선사 후불탱화 봉안불사**=서울 도선사가 호국참회원 삼존불 후불 탱화와 봉안불사를 봉행한다. 호국참회원에 모셔진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9호. 이번에 봉행하는 탱화 불사는 바로 이 삼존불의 후불탱화이다. 해자 스님은 "탱화 불사는 일체중생을 부처님 도량으로 귀의토록 하는 신심의 발현이며, 중 중생들에게 무언의 감화와 위선력을 드러워 주는 일"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2)893-3161
- **대학생정토회 선재수련**=대학생정토회에서 2008년 선재수련 신앙전수가 시작됐다. 일곱 번째를 맞는 인도선재수련과 필리핀선재수련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7차 인도선재수련은 1월 4일~2월 4일 인도 동게스오리 일대에서 이뤄진다. 불교수련과 더불어 동게스오리 일대 마을개발,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기념식 등에 참가하게 된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인도 8대 불교성지순례가 마련된다. 7차 필리핀선재수련은 1월 9~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일대에서 진행된다. 민다나오 일대 마을개발에 참가하고, 마을축제, 불교수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프로그램으로 필리핀 Xavier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평화문화포럼과 평화문화제가 준비되어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5~22일, 대학생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20.org)에서 선재수련 신청서를 다운로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university@jungto.org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5>

### 행동주의와 불교-3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 각자(覺者)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연기법이다. <초전법륜경(初轉法輪經)>을 보면, '세존께서는 우루벨라의 나라자야 강변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후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면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던 중 밤이 시작될 무렵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관찰했다'고 나온다. 이때 관찰한 것이 12연기법이다.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보는 것을 순관(順觀), 소멸하는 대로 보는 것을 역관(逆觀)이라고 한다. 연기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무명(無明)→행(行)
- 식(識)→명색(名色)
- 육입(六入)→촉(觸)
- 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 '갈애' 끊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 행동주의 학습 '갈애대상' 이용

이 가운데 원인이 되는 것이 다섯,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일곱 있다고 하여 인오칠과(因五七果)라고 한다. 무명(무지)과 행(전생업)은 과거 2인으로, 이 과거의 원인에 의한 현생의 결과로서 5과인 식(탁태)·명색(정신과 신체)·육입(감각기관)·촉(접촉)·수(느낌)가 생긴다. 다시 애(갈애)·취(집착)로 인해 유(존재)의 씨앗,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생기고, 이 현재의 3인에 따라 미래 2과인 생(내생)의 태어남·노사(내생)의 늙고 죽음이란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대해 고(苦)나 낙(樂), 불고불락(不苦不樂) 어디에도 갈애를 갖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인 유(有)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애가 다하면 괴로움도 쓴다(愛盡苦盡)고 했다. 이렇게 12연기설에서는 느낌과 갈애 사이, 즉 느낌에 대한 갈애를 끊을 것을 가르친다.

행동주의의 학습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은 개를 대상으로 한 조건반사 실험에서 나왔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생리학적인 원리로 침을 흘린다. 여기서 먹이를 무조건 자극, 침 흘리는 것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개는 먹이는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 줘도 침을 흘린다. 즉 중성자극인 종소리와 무조건 자극인 먹이가 연합이 되어 개는 중성자극인 종소리에 침 흘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 역시 방법론 조금 다를 뿐, 먹이나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동물이 특정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같다. 즉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조작 행동) 먹이가 나와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학습이론은 먹이, 곧 동물이 갈애를 갖는 대상을 도구로 삼는다. 동물의 본능적인 갈애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의 기본 교리인 12연기법에서는 '갈애를 끊을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불교와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양봉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건강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 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급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서 성격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물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꿀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큼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뼈가 부서지는 고산족 마음은 속세 분위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이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명 이상 구입시 석청 제첩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